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말씀>

**일을 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와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시대 성경]

- ① 저마다 할 일을 할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도우시고 함께 일하시나니
- ② 그러므로 놀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약속한 일을 하여라.
- ③ 일을 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와서 대화하시며
- ④ 그 일을 도우시고, 일의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뻐하며 하게 해 주신다.
- ⑤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도, 신령한 말씀도 주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을 맡겨 놓고,
제대로 일하는지 보러 오십니다.

오셔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 사람들도 <일>을 맡겨 놓으면,
‘자신의 마음’에 맞게 하고 있나 궁금하여
못 참고 와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을 맡기시고, 3번은 꼭 오십니다.

- ▶ <일을 시작할 때> 오십니다.

시작을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 ▶ 그리고 <일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오십니다.

자기 주관대로 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한다고 해도,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로 일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 ▶ 그리고 <맡긴 일이 끝날 때> 오십니다.

끝을 잘해야 되기에, 꼭 오셔서 보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을 맡기시고,

<알파 : 시작할 때>, <오메가 : 끝날 때> 오시고,
<중간쯤>에 꼭 오십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원할 때>마다 오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일꾼>은
‘시키는 대로 하는 자’ 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삼위의 몸이 되는 자격자’ 가 됩니다.

이런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데 합당하다.” 하십니다.

- 하나님은 늘 <일할 자>를 찾으십니다.

<성약 천 년 역사>를 펴느라,
‘일꾼’ 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기에게 좋은 점’ 이 있습니다.

▶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각종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권한’ 이 생깁니다.

일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 궁금한 것’ 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일할 때>가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할 수 있는 기회’ 입니다.

- <하나님의 일>을 하면,
 -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특히, <삼위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축복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고, 지혜롭게 해야,
 ‘일을 맡기신 하나님’도 기뻐 감격해 하십니다.

또, 주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일을 완전하게 잘하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잘했다고 하시며, 다른 일을 또 맡겨 주십니다.

- 하나님은
 <시대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그 시대의 일’을 맡겨 오셨습니다.

- ▶ <구약 4000년 동안>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주인으로 대하는 종들’에게
 ‘구약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구약인들>은 종의 입장에서
 ‘종의 차원’ 만큼 마음도 심정도 쏟아서 일했습니다.

▶ <신약 2000년 동안>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하늘의 부모로 대하는 자들’에게
‘신약의 일’을 맡겨 오셨습니다.

<신약인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 차원만큼’만 일했습니다.

▶ 이 시대는 <천 년 혼인 잔치, 사랑의 휴거역사의 때>이니,
‘사랑의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는
‘시대 신부들 중’에서 ‘일꾼’을 뽑아서 일을 맡기십니다.

자기 재능대로, 개성대로, 충성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일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니,
상대도 ‘자기 일’인고로 ‘사랑’으로 해 줍니다.

- 하나님은 -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맡기십니다.
 - <믿으니까> ‘일’을 맡기십니다.
 - <실력>이 있어서 ‘일’을 맡기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랑하는 만큼’ 돕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 <일>을 해 놓고 보면,
하나님은 “네가 관리해라.” 하시며,

<신부들이 일해서 만든 것들>을
신부들에게 또 맡겨서 관리하며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땅>에서는 ‘시대 신부들’ 이 주인이 되고,
<하늘>에서는 ‘삼위’ 가 주인이 되어 살게 됩니다.

- <일한 자>가 ‘일의 내용’ 을 아니, ‘관리’ 도 하게 됩니다.
- 큰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도 성령님’ 도 오시고, ‘천사들’ 도 옵니다.

-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도’ 먼저 하고 해야 됩니다.
- <섭리사의 일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시대 사명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증거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섭리사 국방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위해 꼭꼭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성전 월명동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전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관리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꼭 해 줘야 됩니다.

-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과 마귀>와 담대하게 싸울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부르면 바로 오십니다.

오셔서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결국 ‘그 지역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까지 하십니다.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도,
‘땅’까지 다 태워서 쓰지 못하게 하시고,
‘나무’와 ‘식물’과 ‘짐승’까지 다 죽게 하시고,
‘소금땅’이 되어 풀도 안 나게 해 버리셨습니다.

- 하나님은 한번 <심판>하시면,
미련 없이 하시고 “후회도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 마음 안 아프세요?” 하고 물으면,

“너무 기쁘다.

그렇게도 속을 썩이고, 나 여호와를 무시하고 살던 악을
썩 없애고 심판하니, 속이 시원하다.

썩는 냄새가 나는 쓰레기를 다 없애니,
너무 개운하다.” 하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오셔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답답해하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 첫째, <느낌>과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오시면, ‘몸’ 과 ‘마음’ 이 뜨거워집니다.
 - ▶ 둘째, 기도하고 집중할 때, <환상>을 보고 알게 됩니다.
 - ▶ 셋째, <만물을 통한 징조와 계시>로 알게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절대 꼭 믿고,
<생각>에서 잊지 말고 의식하고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 <자기 마음과 행위>에 따라서
 - <하나님과 성령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고,
 - <시대 사명자>를 쓰고 오시기도 하고,
 - <마음>에 감동만 주기도 하십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오셔도 관심이 없고,
가치 없게 생각하면 오지 않습니다.
 - 찾고, 부르고, 진실로 원해야 오십니다.
 - 감사하고 사랑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오십니다.
 - 심정을 알아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정’ 으로 임하여 오십니다.

- 또,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때 오십니다.

선생님이 2001년 〈말레이시아 포덕슨 해변〉에서
〈1999년도 말세 때 하나님이 유럽에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지 모르고,
선생님과 7~8명이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있던 주변에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옆에 있던 빈 의자가 자꾸 날아갔습니다.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또 날아갈 만큼 바람이 불어서,
그때 하나님이 오셨다고 깨달았습니다.

〈말세 때 성경대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니,
바닷물이 들어오다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멈췄던 밀물이 다시 들어와서 만수가 됐습니다.

- 그리고 이날 〈저녁노을〉을 보는데,
마치 ‘화재가 나서 불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을 때,
“노을이 지는 쪽, 서쪽으로 간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서쪽에 어느 나라가 있냐고 물으니,
미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온 세상을 심판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튿날,
미국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하나님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
행한 대로 축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482년의 싸움이 종식’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선생님이 예수님과 같이 유럽을 다니면서 행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서로가 믿는 구원’이 같다고 하며,
화해하고 하나 되어 평화를 이뤘습니다.

- 또, 하나님과 성령님은
<전도할 때> 오셔서 감동시키며 함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 <월명동 하나님의 전>을 만들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오셔서 같이 일해 주셨습니다.

결국 <야심작>이 5번이 무너지고 6번째 쌓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걸작 자연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늘 <땅의 백보좌, 월명동 자연성전>에 와 계십니다.

- 선생님이 꺾어 보니,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급히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곳에 갈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기도 했습니다.

- 한 번은 월명동을 개발할 때,

<선생님이 예전에 어머니와 받을 매던 가는골에 있는 감나무>,

= <어머니에게 기도 받았던 감나무>에 가 봤습니다.

수십 년 후에 가 보니 그 감나무가 커 있었는데,

가운데 가지가 서로 꺾배기처럼 꼬여 있어 둘 다 못 크게 생겨서,

톱으로 자르려고 톱을 댔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자르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왜 자르지 말라고 하셨는지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선생님을 껴안고 기도해 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감나무>가 ‘어머니가 선생님을 껴안고 기도해 주시던 형상’ 으로 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같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감나무>를 잘 가꿔서 ‘침터’로 만드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형상의 돌>이 나와서 모두 감탄했습니다.

-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성령님과 막고 말리기도 하십니다.
- 이런 일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광야 땅 모압의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보물을 주겠다고 하고,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데,
타고 있던 ‘나귀’가 가지 않고, 오히려 주인에게 대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떠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가서 축복해 줬습니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면 안 될 길>을 갈 때,

‘그 일’을 틀고, 우연같이 막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막고, 〈만물〉을 통해서 막고,
〈상황과 여건〉을 틀어서 막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십 번씩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행한다고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원망’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고 행하시겠습니까.

- 어떤 자가 낙타를 타고 등불을 달고 사막을 지나갈 때,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져서 그 자리에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고 아침에 보니,
500m도 못 가서 작은 마을이 나왔는데,
어젯밤에 사자 떼가 들이닥쳐서
마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명만 살아남아서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등불이 꺼지게 하셨구나.’ 깨닫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 여러분도 <위험한 곳>을 갈 때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의 영’도 가서 돕고 함께해 주십니다.

선생님도 베트남 전쟁 때, <최고 위험한 생명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막아 주기도 하셨습니다.

위험할 때 부르면,
순간 빛같이 빨리 오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의 행하심>을 기도하여 깨닫고,
감사하며 행하기 바랍니다.

- 저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으로, 사랑에 불타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동행하시며,
그에게 임하여 역사하십니다.

- 하나님은 <섭리사>뿐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불꽃같이 쳐다보시면서
‘충성으로 행하는 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과 행하십니다.
- <일 사랑>,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 사랑>입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말씀>을 절대 믿고, 주와 일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삼위일체는 늘 오셔서 돕고 함께해 주십니다.

- <일>은 ‘사랑’입니다.
<대화>는 ‘사랑’입니다.
 - <일>할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오셔서 돕고 함께하시며,
<일>을 하면서 <대화>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가지도 않고 같이 행하며 살아주시는
‘성약 천 년 사랑의 휴거역사의 때’입니다.
- 이를 깨닫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